

# 기호학적인 비유 탐구

-소쉬르의 기호학과 플라톤의 태양·동굴 비유를 중심으로-

사학과 3학년 201421661 차재현, 송하석 교수님 지도

## 서론

소쉬르는 “일반언어학강의”에서 인간의 기호에 대한 인식체계를 정리했지만, 그것을 비유라는 상징활동으로까지 확장시켜 설명하는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소쉬르의 기호학적 분석을 비유라는 상징활동으로까지 확장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비유들 중에서도 플라톤의 ‘국가론’에 등장하는 ‘태양비유’와 ‘동굴비유’는 이러한 탐구활동에 적합한 비유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소쉬르의 기표, 기의개념과 기호의 자의성을 간단하게 짚은 다음 어떻게 기호학적 개념으로 플라톤의 두 가지 비유를 분석할 수 있을지를 짚어보고, 기표와 기의개념을 비유에 적용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기호학적 분석이론

### (1) 기표, 기의 개념

소쉬르는 “나무” 기호를 청각영상인 기표와 개념인 기의를 구분해내고, 서로 구분되는 청각영상들이 궁극적으로 “나무”라는 같은 개념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떤 개념을 원래 그 개념이 가지고 있던 청각영상과는 다른 청각영상으로 비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표현된 개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 (2) 기호의 자의성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의 자의성을 정리해두자. 기호의 자의성이란, 기표에 깃든 기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끼리 임의로 약속하고 공유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 가지 기표는 한 가지 기의만 함의할 필요가 없다.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기의를 함의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기표에는 여러 가지 기의가 함의될 수 있다. 당장 한국어에서도 “쥐”라는 기표가 “동물 쥐”라는 기의 말고도 “부패한 관료”라는 기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태양·동굴비유 분석

### (1) 플라톤의 이데아론

먼저 플라톤이 ‘선분의 비유’로 정리한 이데아론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각각 태양, 동굴비유로 설명되었는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선분의 비유’에서 자신의 이데아론은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어떤식으로 비유했는지를 살펴보고 각각 비유들에 사용되는 핵심 기호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다음 이들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 (1) 선분의 비유 정리

선분의 비유	현실세계(가시계)		이상세계(가지계)	
세계구분				
존재의 형태	현상	대상	수적 대상	이데아
존재의 신뢰도	허상, 상상	믿음, 물체	추론, 가정	진리, 앎
판단의 수단	감각		지성	

#### (3) 동굴 비유 정리

동굴비유	기표		기의	
세계 구분	동굴 내부	동굴 외부	현실세계	이상세계
실재	물체	풍경	현실세계의 대상	이데아
현상	그림자	풍경의 그림자	현실세계의 현상	수적 대상
이데아	불빛	태양	이성	선의 이데아
이데아 인식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감각에서 벗어나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봄	

#### (2) 태양 비유 정리

태양비유	기표	기의
존재의 구분	물체	실재
	그림자	현상
판단수단	시각	감각수단(감각, 이성)
이데아	빛	이데아

#### (4) 태양 비유와 동굴 비유 정리

이데아론	비유의 기표			비유의 기의		
비유 종합	태양비유	동굴비유		태양비유	동굴비유	
세계구분	X	동굴내부	동굴외부	X	현실세계	이상세계
실재의 비유	물체	물체	풍경	실재	현실세계의 대상	이데아
존재의 구분	그림자	물체의 그림자	풍경의 그림자	현상	현실세계의 현상	수적대상
이데아의 형태	태양빛	불빛	태양	이데아	이성	선의 이데아
이데아의 인식 수단	눈-시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인식	감각으로부터 해방된 이성	

## 기호학적 이데아론 분석 정리

### (1) 공통점

우선 공통점을 구분해보자. 이 둘은 모두 우리가 감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현실세계와, 오직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이상세계를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이데아가 이 두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 (2) 차이점

플라톤이 정리한 선분의 비유에서는 존재의 신뢰도를 각각 허상-상상, 믿음-물체, 추론-가정, 진리-앎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호학적으로 분석해본 태양, 동굴비유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선분의 비유에서는 각각 감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났으나(가령 그림자, 물체, 수학, 이데아처럼) 기호학적으로 분석해본 태양, 동굴비유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태양, 동굴비유는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선분의 비유보다 덜 자세했던 것이다.

### (3) 한계

물론 이러한 비교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선분의 비유를 정리한 표와 태양, 동굴비유를 정리한 표의 행과 열이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보여야 했지만, 이 둘을 비슷한 행과 열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태양, 동굴비유를 기표, 기의로 나눠서 분석하려다보니 자연스럽게 플라톤의 선분비유를 정리한 표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행과 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둘을 비슷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점은 고스란히 이 보고서의 정확성과 엄밀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 참고문헌

\* R.M.헤어, 『플라톤의 이해』, 강정인, 김성환 역, 문학과지성사, 1991 / 박병기,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이론과 실제」, 『철학연구 제113집』, 대한철학회, 2010 / 이상인, 「플라톤의 ‘이데아의\_가설’\_번역과\_해석의\_문제」, 『대동철학 Vol. 54』, 대동철학회, 2011 / \* 플라톤, 『국가』, 천병희 역, 숲, 2013 / 플라톤, 『플라톤의 대화편』, 최명관 역, 창, 2008 /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강의』, 김현권, 지식음만드는지식, 2012 / 정영란, 「플라톤의 국가, 정의를 꿈꾸다」, 사계절, 2008 / 찰스 밴 도렌, 『지식의 역사』, 박종서, 갈라파고스, 2015